제5강 존재론(철학)과 자연철학(과학): 갈등과 화해 I

(1교시)

이오니아 지방의 에페소스에서 태어난 헤라클레이토스는 철학적 사유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인물로 평가된다. 이오니아적인 탐구 정신을 가졌지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성찰, 그리고 세계의 보다 심층적인 차원의 응시를 통해 철학사의 중요한 분기점을 만들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어두운 사람', '수수께끼를 내는 사람'으로 불렸을 정도로 독특한 개성을 가진 은둔자(隱遁者)였다. 그의 말은 마치 델포이(델피)의 신탁처럼 "드러내지도 않고 숨기지도 않고, 다만 암시할 뿐"이다. 그는 철학사에서 언어의 힘에 최초로 주목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흐른다(panta rhei)"고 말함으로써 생성의 사유를 제시했으나, 동시에 모든 흐름은 하나의 로고스에 의해 지배된다고 함으로써 세계의 이중적 구조를 강조했다.

만물의 흐름을 헤라클레이토스는 불로 일컬었으나 이 불은 구체적 불이기보다는 생명, 에네르기, 氣 같은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불은 언제나 타고 있으며 때문에 헤라클레이토스는 우주의 '탄생'을 부정했다. 세계는 불"로부터" 생성한 것이 아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밀레토스적 환원주의를 거부한다. "만물로부터 하나가 생겨나고, 하나로부터 만물이 생겨난다."
그래서 우주는 순환적이다. 불이 죽어 공기를 낳고, 공기가 죽어 물을 낳고, 물이 죽어 흙을 낳고, 흙이 죽어 불을 낳는다.(五行說과 비교) 그러나 이 방향으로만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도 이루어진다.

세계는 대립과 모순으로 되어 있다. 어떤 중심은 없으며 대립과 모순이 세계를 움직인다.(헤겔과 비교) "싸움이 만물의 아버지이고 만물의 왕이다."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는 퓌타고라스적인 조화가 아니라 싸움이 전제되는 조화를 역설한다.(활의 예) 진정한 조화는 쉽게 보이지 않는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진정한 인식'이 무엇인가를 물음으로써 철학사에서 '인식론적 탐구'를 시작했다. 박식은 결코 참된 인식을 주지 않는다. 때문에 그는 퓌타고라스 학파를 통렬하게 비판하곤 했다. "로고스를 동반하지 않는다면 눈과 귀는 나쁜 증인이다." 참된 인식은 만상(萬象)의 원리를 꿰뚫어보는데 있지 잡다한 지식들을 늘어놓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은 그 난해한 표현과 심오한 내용 때문에 그다지 잘 이해되지 못했다. 그리고 서구 사유가 파르메니데스의 '존재'의 철학을 따름으로써 그의 '생성'의 철학은 묻혀지게 된다. 그러나 니체 이후의 생성철학은 그의 사유를 부활시켰으며 오늘날 가장 매력적인 철학자들 중 한 사람으로 연구되고 있다.

www.artnstudy.com

(2교시)

엘레아(Elea) 학파는 서구 철학사에서 거대한 분기점을 그었다. 이후의 그리스 철학사는 엘레아학파에 대한 응답으로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엘레아학파는 크세노파네스, 파르메니데스, 제논 등으로 대변된다.

크세노파네스(Xenophanes)는 고대 그리스의 '비판철학자'라고 할 수 있다. 이오니아 지방에서 태어났으나 페르시아의 침입 때 이탈리아 지방으로 옮겨온다. 음유시인(吟遊詩人)으로서 크세노파네스는 호메로스를 비판함으로써 의인화(擬人化)된 신들의 존재를 부정했으며, 그에 대신해 "신은 오직 하나이다"(단편 23)라 했다. 또 무지의 자각에 바탕한 성실한 지적 탐구를 역설함으로써 소크라테스의 선구가 되었다. 또 크세노파네스는 퓌타고라스 학파의 '윤회전생설(輪廻轉生說)'을 비웃기도 했다. 크세노파네스는 음유시인으로서 지중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문화의 상대성을 몸에 익힌 사람이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신을 검은 피부에 넓은 코로 그릴 것이고, 코카소스 지방 사람들은 금발에 푸른 눈으로 그릴 것이라고 함으로써, 문화의 상대성을 강조했다.

크세노파네스는 독자 노선을 걸어간 인물이며, 본격적인 '엘레아학파'는 파르메니데스에서 시작된다. 마그나 그라에키아(남부 이탈리아)와 시칠리아 지역에서 활동한 철학자들은 대개 퓌타고라스 학파의 그늘 아래에 있었다. 파르메니데스 역시 퓌타고라스 학파의 영향을 받아 감각과 사고를 구분하게 되며, 퓌타고라스 학파보다 훨씬 날카로운 이분법을 견지하게 된다. 파르메니데스는 퓌타고라스 학파를 비판함으로써 사유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디게 된다.

엘레아학파는 이오니아 지방으로부터 남부 이탈리아로 건너온 사람들에 의해 세워졌다. 파르메니데스(Parmenides)는 515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파르메니데스는 자신의 사상을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의 전통을 이어 장중한 서사시 형식으로 발표했다.

www.artnstudy.com